

# “한번물면 놓지 않는 사냥개처럼 화두도 지독하게”

## 일본 하나조노 대학 특강

수불 스님(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 1. 활구(活句) 의식이 걸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공안 상에서 의심이 일어나면 어떻게든 공안의 낙처(落處)를 알고 싶어서 갑갑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두를 들고 공부하려는 의지 속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갑갑함이 점점 커져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활구를 들고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활구가 들려 공부의 방향이 제대로 잡혔더라도, 마치 여울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뱃사공처럼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해 밝은 해를 볼수록 눈으로 비춰서 불을 연듯이 초점을 맞춰 집중해야 합니다. 고인들은 이 일을 쥐를 잡으려고 만들어진 물소뿔로 된 돛 속으로 쥐가 먹이를 찾아 들어감에, 꼭 끼어서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곳에서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기가 무쇠소의 잔등에 붙어서 주둥이로 계속해서 뿔어서 몸까지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화두를 들자마자 처음부터 앞뒤가 꼭 막혀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물면 이빨이 빠지는 목이 끊어지는 절대로 놓지 않는 사나운 개처럼, 화두를 한 번 들면 일념만 년이 되도록 지독한 마음을 가져야 의심을 제대로 지어갈 수 있습니다.

이치가 이렇게 때문에,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철두철미하지 않고서는 결국 사구(死句)를 들고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발을 잘못 내디디면,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학인은 자신이 활구를 들었는지 사구를 들었는지 스스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는 눈 밝은 선지식의 점검과 지남(指南)이 요긴한 것이 간화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임제종 총림대학인 하나조노 대학이 11월 23일 개최한 국제선학세미나에서 간화선 특강을 하고 있는 수불 스님. 사진 위 일원형상은 임제종 총종호 하쿠인 선사사의 유목이다.

### 2. 화두 의심이 의정(疑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참의심이 한 줄기로 꿰어지면, 강력한 정신적 벽이 앞을 가로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 수 없었던 근본문제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용맹심을 발해서 머리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온몸으로 그 벽을 향하여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화두에 집중하면 할수록 어느덧 화두를 내려놓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이때는 화두가 저절로 들리게 되는 상태가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정 상태가 되면 힘을 쓰지 않아도 화두가 잘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학인에게는 마치 화두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유하면 알약을 한 번 삼키면 약기운이 몸속에 퍼지듯이, 화두 기운이 이미 몸속에 퍼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두가 들려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하던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화두가 힘들이지 않고 잘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미세한 번뇌 망상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망상을 없애고 공부하려 하지 말고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내버려두고 화두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의정이 동정(動靜) 가운데 하루 종일 흠어들어지지 않고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으면서 저절로 이어지는 호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들려진 화두를 잘 호지하고 그대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 3. 의단독로(疑團獨露)가 되어야 합니다.

화두의심이 의정화 되고, 의정은 마침내 의단독로 하게 됩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진퇴양난에 빠진 것처럼,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어찌 해볼 도리도 없이 꼭 막힙니다. 마치 독약에 중독된 것처럼 숨통이 막히고, 사방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옥죄어올 것입니다. 송말(宋末) 원초(元初)에 살았던 고봉원묘(高峯原妙) 선사는 <선요(禪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하여 안과 밖이 한 조각이 되게 하

“  
간화선 수행의 단계  
갑갑함 밀려오며 의심 일어나면  
저절로 화두 들리는 의정에 들어가  
목에 걸린 밤송이처럼 의단 뭉쳐진 후  
시절인연 따라 은산철벽 무너져

“  
불속에서 연꽃 피는 도리 체득  
바로 선지식 점점 받아야



수불 스님이 김영택 화백의 범어사 일주문 편화를 하나조노대 호소가와 학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스님은 같은 대학 도서관에 <선문활요> 범어사 인경본도 기증했다.

있을까요? 여기에 이르러서도 처음부터 해운, 답 찾는 일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절인연 따라 은산철벽이 무너짐을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 4. 불속에서 연꽃이 피는 도리

의단이 독로하여 시절인연이 오면 순간적으로 의단을 타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 통쾌함은 직접 맛본 사람만이 압니다. 큰일을 마치고 난 뒤에는 꼭 막혔던 속이 텅 비게 됩니다. 온 몸과 마음이 새의 깃털보다 가볍고 앞뒤가 특 터져 한없이 시원해집니다.

화두가 타파되면, 마치 소나기가 내린 뒤 먹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몽땅 드러나듯 확연한 것이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듯 분명해집니다.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공부상의 인연들이 드러나면서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불속에서 연꽃이 피는 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는 곧바로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흐름에 맡겨 세월을 잘 보내야 합니다. 늘 부끄러움을 아는 수행자로서 자세를 낮추고 정진하다보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 일본 하나조노 대학 특강 현장

### “東國大·花園大 서로 거울되자”

하나조노대 국제선학세미나 초청  
수불 스님 ‘간화선 탐구’ 특강에  
100여명 청중 몰려...호응 관심 커

동국대학교는 일본 교토 하나조노(花園)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일본 임제종 총림대학인 하나조노 대학의 국제선학연구소는 2013년 국제선학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올해의 특별행사로 ‘간화선의 탐구’ 특강을 기획하고 대한불교조계종 금계총림 범어사 주지인 수불스님을 초청하였다. 하나조노 대학은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서용스님께서 유학하신 대학으로, 일본 임제종 모심사파가 일본사회에 임제선을 구현하기 위해 1872년에 세운 대학이다. 모심사

파는 교토 5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본산으로, 일본 전국 6,000여개 임제종 사찰 중에서 3,500여개 사찰을 맡사로 두고 있다. 서용스님은 동국대학교 초대 선원장을 지내셨는데, 그 인연이 이어져 이번에 하나조노 대학은 현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인 수불스님을 초청한 것이다.

특강이 열린 하나조노 대학 교당에는 정면에 일본 임제종 중흥조인 하쿠인(白隱) 선사가 그린 일원상이 높이 걸려있었다. 호소가와 게이쥬 학장, 요시다 에이레이 불교학과장을 비롯한 많은 선학자들, 대학 원 및 학부 학생들 그리고 신문과 벽보를 보고 찾아온 교토시민 등 100여 명의 청중들은 진지하고도 뜨거운 열기로 간화선의 이론과 실재를 소개하는 수불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통역은 조선불교를 전공한 한국통인 나가자마 시로 교수가 맡았다.

수불스님은 먼저 인사말에서 임제종의 전통을 강조했다. “우리 동국대학교와 일본 하나조노 대학은 유사한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대승불교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설립된 명문 사학입니다. 특히 양교 모두 임제종의 전통을 잇고 있는 대학교라는 점에서, 오늘의 행사는 범형제로서 서로 법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되어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과 대화를 통해 양교가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하고, 한국과 일본의 불교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특히 일본 학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한국불교 간화선 수행법의 실체를 공개하겠다고 하여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장장 3시간에 걸친 특강과 질의응답이 끝나자,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하였다. 수불스님은 특강 후 범어사 목판본 <선문활요>를 대학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특강이 끝나고 학과장 요시다 스님은 수불스님과 그 일행을 특별히 인근의 모심사파 정식선원인 ‘금모골(金毛窟)’로 안내하였다. 이 선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으로, 수좌들은 12세기 일본 임제종 개조 에이사이(榮西)가 들여온 송대 수행전



모심사파 선원 금모골은 12세기 수행전통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 선방에는 흑한 등에 대비한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고 먹거리도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해결한다.

수행전통 유지하는 금모골 방문 등  
양국간 임제종 전통 이해하며  
상호 유대의 장 마련

통을 엄격히 유지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선방은 흑한이나 흑서에 대비한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출입문과 창문도 없이 자연에 그대로 개방되어 있었다. 공간이나 해우소도 수백년 된 전통 그대로 운영되었고, 먹거리도 수좌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해결하고 있었다.

이어 모심사 개산당(開山堂)과 방장(方丈) 그리고 탐묘(암자)를 둘러보면서, 한일 양국의 수선(修禪) 학자들은 일본 특유의 선원 정월인 가레산스이(枯山水) 정원에서 말차와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마침 단풍철을 맞이하여 흰 자갈 위에 점점이 떨어진 붉은 단풍잎을 바라보면서, 일행은 준엄하고도 간명직절 하게 본지풍광을 드러내는 임제가공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호이해의 귀중한 장(場)을 마련하였다. 양교는 앞으로도 깊은 유대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김홍근 박사 (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



禪農教團  
宗務法人

##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제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